

특집  
제 1  
부

# 養鷄人의 소리

취재부

## 생산자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료가격인상을 원하고 있다.

단미사료 문제로 작년부터 술렁이던 사료업계는 드디어 사료난에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이는 양계업자의 목을 조아기 시작하여 현재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양추가는 몇개월 전만해도 사료효율을 기초로 해서 가격을 따져 좋은 사료를 취사선택할 수 있었고, 약간의 미불금을 깎고도 거래가 원활했으나 이제는 이런 혜택을 박탈당함은 물론 실상가격으로 질병까지 만연해 처절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예전의 거래는 농장까지 전화 한번으로 도착시켜주던 것이 지금은 현찰을 들고 아침서부터 용달차를 대절하여 사료공장앞에서 기다려도 사료구입이 어려워, 굶기고 있는닭장을 향하여 한숨만 짓는 실정이며, 구한다고 해도 겨우 일부뿐, 그것도 양계사료라면 구분없이 구입하는 것으로도 감지되지해야만 하는 현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양계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일까?

60일이면 2kg이 넘던 육계가 겨우 1.5kg선의 쪼미용밖에 안되니 속이 썩어 터질 일이나 10일을 더 키워 겨우 1.8~2kg가 되어 출하시키려면 윤기가 없고 피부는 희고 꾹 병든 닭모양 뼈만 굵어졌으니 상품 가치는 제로일수 밖에…

사료와 질병때문에 “미치겠다” “집어치워야지.” 등등의 불만이 요즘 산란, 육계 업계에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사업으로의 전업을 꿈꾸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니, 매년 늘고 있는 육류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은 누가 할 것인가?

### 파동! 파동! 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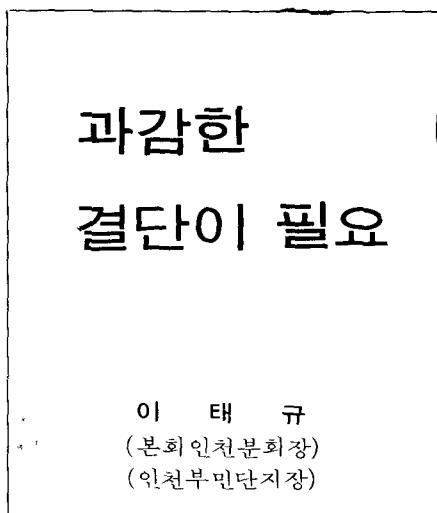
여러 분야의 파동이 있지만,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닭고기 파동이 또 한차례 올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사료질이 나빠지는만큼 닭들의 저항력이 약해져 질병 또한 부쩍 늘고 있다. 덕분에 성수기의 육계가격이 예상외로 호조를 보여 웃고있는 양계가가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질병의 피해로 울고 있는 양계가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희비쌍곡선은 과연 양주가만 책임져야 할 일인가? 사료의 질 하락과 질병의 다발은 당연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사료공장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현행 가격수준에서는 조단백질 수준을 맞추자니 에너지 수준이 약 맞고 에너지에 맞추자니 단백질수준이 안 맞으며, 헌가격으로는 영양제나, 질병예방제 등 비싼 첨가제의 사용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이며, 효율좋은 사료를 만들자면 질좋은 비싼 원료를 충분히 배합해야 됨으로 사료가격의 현실화만이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료공장이나 제약, 기구류 모두 저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글쎄... 여하간 양축가는 사료가격의 현실화를 원하고 있다 빼히 당하는 것은 임주가인 줄 알면 서도 순박한 마음 그대로 사료질이 좋아질 것을 믿고 있다

사료가격인상은 단기적인 대책이다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사료난은 계속 양·수사를 괴롭힐 것이며, 또한 사료공장은 공장대로 양·수사의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임계는 점점 어수선해질 것이다

제 1부에서는 현실에 처한 몇몇 양축가의 소리를 나눠 보았는데, 이구동성으로 사료가격을 인상시켜놓고, 좀 절경쟁을 하라는 결론이다 과연 양계업계는 어디로 사고 있는 것일까?



「무슨 눈치를 살펴요... 그냥 먹지 뭐」

사료가격이 오른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실상 사료가격이 좀 올라야 생산차도 살 것 같습니다

요즘 사료가 사료입니까... ?

말이 사료지 겨우 며여 살리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정부나 협회에서 과감하게 사료효율개선에 앞장서지 않으면 양계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료질은 떨어지고, 비례해서 사료섭취량은 더욱 늘고 있기 때문에 사료공장 전체가 가동되어도 물량공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년에는 사료효율이 2.5~2.8 까지는 유지되었는데 요즘은 3~3.5정도나 떨어지니 국가적으로도 얼마만큼의 손해인가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60일령에 출하하던 것이 10일이나 늦춰 출하하여도 닭이 충실치 않습니다. 사료는 혼 찰가지고도 구입못하는 실정이니 쇠고기 파동이니, 쇠고기 수입이니 하여 육류난에 허덕이는 이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당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사료원료의 수입물량을 과감히 늘린다면 하는것 말입니다

## 특집 제 1부 / 양계인의 소리

현재 수입사료원료에서 안정기금이라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정기금이 무슨 목적에서 적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수입원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양계업자에게는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안정기금은 사료가격을 안정시키고 품질을 유지하는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양계가 입장으로서는 요즘 같이 사료난에 허덕이는 이때에 이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길 바랍니다.

안정기금을 옥수수, 수수 도입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품목에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희 단지는 77년 전반기를 뉴캐슬병으로 전혀 입추를 못하고 있다가 요즘 성수기를 바라보고 100여명 회원중 50여명이 입추하여 몇 명은 출하가 시작되고 거의 출하일령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회원 모두 이구동성으로 사료질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질향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약품의 첨가입니다. 사료에 전혀 영양제나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료질이 그렇게 우왕좌왕한다면 우리들도 밀기울, 옥수수 등을 배정받아 단지별로 아니면 대한양계협회에서 사료공장을 설립하여 회원에게 공급할 수 있던가 혹은 각자가 얼마든지 배합하여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듭니다.

저는 요즘 동물약품을 믿지 못하여 인체용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인체용이 싸고 치료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사료질도 약의 품질도 나빠지고 반면 가격은 더욱 오른다면 양축가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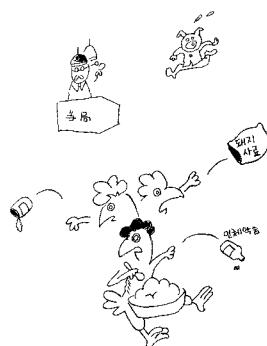
이런 제반경비가 올라가면 출하하는 닭값도 올려 받아야 하는데, 이 가격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하간 사료가격은 적정선에서 올려 질을 좋게 만든다면 우리 양계업자로서는 출하일령을 단축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축가 없는 축산행정, 사료공장, 제약회사가 존재 할 수가 있을까요?...

전업하고  
싶어...

최 용 규  
(경기시흥군 매화리 산 5번지  
보원농장대표)



「제길, 주는대로 먹으니 아찔하구나」

사료질이 형편없으니까 자연히 닭은 영양부족이 되어 질병이 전보다 늘어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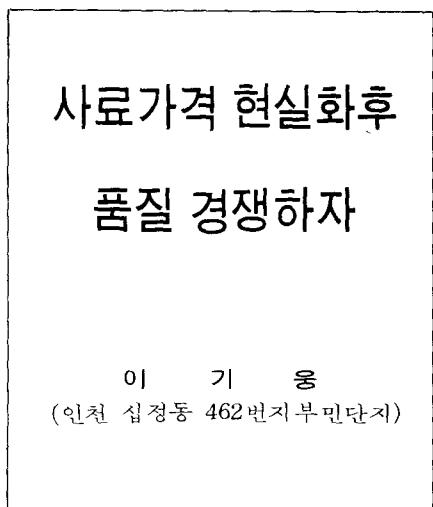
## 양계업 어디로 가고 있나

성장이 형편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료구입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몇몇 주위 업자들은 사료 구입이 어려워져 아예 전업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보아서 긴급사료수급 대책이 필요하며, 사료가격 고시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여 사료가격을 인상시켜 질과 양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사료가격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양축가에 부담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2중 3중으로 받고 있는 피해를 극소화 시켜 도움을 주는 간접적인 이익이 더욱 큽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실시후 사료, 약품등 가격이 양등되어 저도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생산비는 늘고 출하가격은 안 오르니, 결국 손해는 양축가가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양계협회에서도 유통에 과감하게 참여하여 허덕이는 양계업자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의 지금 심정은 양계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 경우라면 양계업을 접어치우고 싶습니다

축산업이라는 것은 년중 계산해 볼 때 이익은 박하고 힘은 힘대로 드는 것인데 1차 산업이란 것이 이렇게 고되고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육계도 기르며 돼지도 몇마리 기르고 있습니다만, 육계전기사료가 안나와서 후기사료를 가는 체로 쳐서 전기사료를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사료가 생산 안되고 보니까 산란계사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궁여지책으로 육계사료대신 산란종제용을 사다 먹여 보았습니다만, 질은 마찬가지더군요.

사료공장에서 원료가 없어서, 사료질이 나쁠 수 밖에 없다는데 사료원료가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료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부담이 큽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실시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2,540원이 포대당 원가인데, 실상 2,794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10%부가가치세 포함가격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부터 사료원가가 인하조정되므로 서

부가가치세를 10% 적용해도 실제가격은 1.58%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렇게 되는 것은 의제매입세의 혜택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값이오르고 길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또한 약값도 대체로 20%나 인상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만 빼 놓고, 인체용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체용이 약값도 덜들고, 효과도 좋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육계 출하시 중량이 안나갑니다. 그것도 7~10일간이나 더 길어서도 말입니다...

아무튼 사료가격이 현실화된 후에 질을 따지는 것이 순서겠죠 또한 이러한 일은 양계협회에서 주관하여 사료공장이나 정부에 간곡히 전의해 주심이 우리 회원들을 아껴주는 일 일것입니다

## 사료가 아닌 약을 먹고 크는 닭으로 변화

조인월  
(인천 구월동 3번지)



「물가에 가면 위험하단다」

서는 8년간 양계업을 해 오고 있으나 요즘같이 사료질이 떨어지는 것은 처음 당해봅니다

사료질이 떨어지니 따라서 질병도 흔해지고 있으며 성장율도 1주일씩이나 지연되며 사료 섭취량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기마다 30°C 이상의 폭서로 죽기까지 하는 이때 양계가는 초긴장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아리가 약하다 보니까 약에만 의존하게 되며 따라서 사료를 먹고 자라는 턱이 아니라 약을 먹고 자라는 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의 과용은 소비자에게 위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 모두 자숙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사료구입의 곤란은 저의 경우에는 7년간 한 사료공장을 거래해온 덕분에 구입에 큰 곤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소규모업자들은 턱 출하시에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료의 질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며, 또한 턱은 사료질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서로서는 침가제와 어분을 따로 구입하여 배합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때문에 사료가격에 상관없이 사료질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인해 사료가격이 7월이전보다 상승한 셈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의 부가가치세중에서 5.4% 소비자가 4.6%를 부담한다는 명목으로 4.6%인상된 가격으로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